

대법원 2017도12346
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 등 사건

보도자료

대법원 공보관실(02-3480-1451)

대법원(주심 대법관 김신)은 2017. 12. 22.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위반(뇌물)죄 등으로 원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진경준(전 검사장)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피고인 김정주(주식회사 엔엑스씨 대표이사)에 대한 상고심 사건에서, **피고인 진경준의 상고 중 뇌물수수, 알선뇌물수수 부분과 피고인 김정주의 상고 및 검사의 일부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**하고,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**환송**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음(대법원 2017. 12. 22. 선고 2017도12346 판결)

1. 사안의 내용

가. 공소사실의 요지¹⁾

■ 피고인 진경준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²⁾위반(뇌물), 피고인 김정주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 ➡ 피고인들 및 검사 상고 부분

피고인 진경준이 피고인 김정주 또는 넥슨에 장래 발생할지도 모르는 형사사건에 대하여 ① 자신의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는 직접 유리한 처분 또는 편의를 제공하고(뇌물수수), ② 직무권한 범위 밖일 경우에는 담당 검

1) 피고인 진경준에 대한 뇌물수수, 알선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죄, 제3자뇌물수수죄,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, 위계공무집행방해죄, 피고인 김정주에 대한 뇌물공여죄가 공소사실이지만, 편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죄 부분만 정리함

2) 이하 ‘특가법’이라고 함

사에게 알선을 청탁해 주는 대가로(알선뇌물수수), 아래와 같은 이익을 수
수하였음.

[넥슨 주식 관련]

- ① 2005년 5월 말경 피고인 김정주로부터 당시 넥슨 주주였던 A가 처분할
넥슨 주식 중 10,000주를 취득할 것을 제안받고, 2005. 6. 3. 넥슨으로부
터 차용한 4억 2,500만 원으로 A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넥슨 주식을 매
수할 기회를 제공받았음.
- ② 2005. 10. 28.~11. 3.까지 넥슨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피고인 김정주로
부터 4억 2,500만 원을 받았음.
- ③ 2006. 10. 31.경 넥슨재팬의 상장 과정에서 상장을 위해 설립된 B회사에게
위와 같이 취득한 넥슨 주식을 팔고 그 돈으로 넥슨재팬의 신주를 취득하
였음.

[제네시스 승용차 관련]

- ④ 2008년 2월경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된 제네시스 승용차를 무료로 사용
할 수 있도록 제공받았음
- ⑤ 2009. 3. 19. 리스차량 명의를 이전받는데 필요한 3,000만 원을 받았음.

[여행경비 관련]

- ⑥ 2005. 11. 22.부터 2014. 12. 17.까지 11회에 걸쳐 약 5,000만 원 상당의
항공요금 등 여행경비를 받았음.

나. 사실심의 판단

(1) 제1심

▣ 피고인 진경준 : 징역 4년³⁾

● 특가법위반(뇌물) : 무죄

▣ 피고인 김정주 : 무죄

3) 피고인 진경준에 대한 제3자뇌물수수죄,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유죄로 인정됨

(2) 항소심 : 원심파기

▣ 피고인 진경준 : 징역 7년 및 벌금 6억 원, 추징 502,195,800원

- 특가법위반(뇌물) : 일부 유죄, 일부 무죄
- 유죄 부분 : 넥슨 주식과 관련된 4억 2,500만 원 부분, 제네시스 승용차 관련 부분, 일부 여행경비 관련 부분
- 무죄 부분 : 넥슨 주식을 취득할 기회를 제공받은 부분, 넥슨재팬의 주식을 취득한 부분, 일부 여행경비 관련 부분

▣ 피고인 김정주 :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

- 뇌물공여 : 일부 유죄, 일부 무죄

다. 상고이유 요지

▣ 피고인들

- 피고인 진경준이 피고인 김정주로부터 받은 이익은 피고인 진경준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음.

▣ 검사

- 피고인 진경준의 넥슨 주식 취득 부분, 넥슨재팬 주식 취득 부분 및 일부 여행 경비 부분 역시 뇌물수수,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함.

2. 대법원의 판단

가. 사건의 쟁점

- 검사가 장래 발생할 수 있는 형사사건을 대가로 금품 등을 받은 경우 뇌물수수죄,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임.

나. 판결의 결과

-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 진경준이 피고인 김정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원심 유죄 부분을 파기환송함.

- 검사가 상고한 원심의 무죄 부분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므로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.

다. 판결 내용

- ▣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넥슨 관련 뇌물 부분 중 **공소제기일(2016. 7. 29.)로 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** → 2007. 10. 24.이후의 여행경비 취득 부분, 제네시스 승용차 관련 부분임.

[뇌물수수죄 관련 확립된 법리]

-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여야 하고,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한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음.
- 공무원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음.
- 그러나 장래에 행사할 직무의 내용이 수수한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, 장차 공무원이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여부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.

[알선뇌물수수죄 관련 확립된 법리]

- 형법 제132조의 알선뇌물수수죄는 알선행위가 장래에 할 것이라도 무방함.
- 그러나 알선행위 내용이 수수하는 이익과의 관련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함.
- 단지 공무원에게 잘 보이면 장래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 정도로는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음.

[뇌물수수 부분에 대한 본건 판단]

- 이익이 오고 갈 당시에 피고인 김정주나 넥슨에게 피고인 진경준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 장래에 발생할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음.
- 피고인 진경준이 피고인 김정주로부터 이익을 수수할 당시 피고인 김정주나 넥슨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기는 했지만, 사안 자체가 범죄가 성립하기 어렵거나 경미한 사건들이었고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없음.
- 피고인 진경준이 위 수사를 받은 사건들을 직접 처리할 권한이 있었다거나 담당 검사에게 청탁하는 등 사건처리에 개입한 사정도 찾을 수 없음.
- 공소사실 자체로 청탁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, 피고인 김정주가 피고인 진경준에게 부탁할 사건 자체를 특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음.
- 피고인 진경준이 받은 돈과 관련된 사건 내지 피고인 진경준이 피고인 김정주를 위해 해 줄 직무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막연함.
- 피고인 진경준이 받은 이익이 그가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수수되었다거나 그 대가로 수수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.

[알선뇌물수수 부분에 대한 본건 판단]

- 피고인 진경준이 이익을 수수할 당시 피고인 김정주나 넥슨에 발생할 형사사건의 내용은 물론 실제로 형사사건이 발생할지도 알 수 없는 상태였음.
- 피고인 진경준이 피고인 김정주를 위해 알선을 해 줄 내용이 어느 정도라도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.
- 피고인 김정주는 피고인 진경준에게 잘 보이면 그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에서 이익을 공여하였고, 피고인 진경준 역시 피고인 김정주가 그러한

기대감을 가질 것이라고 짐작하면서 수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.

■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넥슨 관련 유죄 부분 중 **10년이 경과한 부분** ➡
2005. 10. 28.~11. 3. 넥슨 주식매수와 관련된 425,000,000원 부분임.

-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적용될 구 형사소송법(2007. 12. 21. 법률 제 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2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, 이 부분 공소시효는 10년임.
-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면, 이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료된 후 공소가 제기(2016. 7. 29.)된 것이므로 면소판결을 해야 함.

■ 원심이 무죄로 인정한 부분 ➡ 넥슨 주식과 넥슨재팬의 주식의 취득 부분, 일부 여행경비 지원 부분임.

- 원심은, ① 넥슨 주식을 매수할 기회는 피고인 김정주의 필요에 따른 측면이 있고 피고인 진경준뿐만 아니라 피고인들과 함께 친분이 있던 C, D에게도 함께 제공되었고, ② 넥슨재팬의 주식을 취득한 부분은 넥슨이 일본 증시에 상장되면서 B회사에게 피고인 진경준이 취득한 넥슨 주식을 팔고 받은 돈으로 상장이 예정된 넥슨재팬의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넥슨재팬의 주식을 살 기회는 당시 넥슨 주식을 갖고 있던 모든 주주에게 제공된 것이었으며, ③ 일부 여행경비 제공 부분은 역시 피고인 진경준뿐만 아니라 피고인들과 함께 친분이 있던 C에게도 함께 제공된 것이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음.
- 원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,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음.

3. 판결의 의의

■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종전 확립된 법리를 다시 확인함